

홍천군 가리산자연휴양림 재개장 맞춤형 환경개선공사 완료



강원 홍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관광'이 주목받자 가리산 자연휴양림을 대폭 개선해 재개장했다. 홍천군은 1998년 두촌면 가리산 중턱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숙박 시설이 노후화해 3억2천만원을 들여 최근 개선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숙박시설의 내·외부 시설 교체는 물론 사계절 냉·난방비 절약과 소음차단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가리산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잠정 폐쇄됐다가 7월 3일 재개장한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숙박시설 2개동에 대한 주말 예약이 8월 17일까지 대부분 끝난 상태였다.

특히 홍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에 따라 비대면 생활 패턴을 위한 방역 대책도 한층 강화했다.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체크, 방문·출입일지 기록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가리산자연휴양림은 해발 1천51m의 가리산 동쪽 자락의 넓직한 분지에 있으며, 노송들이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룬다. 입구에 8m 높이의 폭포가 있으며, 작은 장구실골짜기와 큰 장구실골짜기, 용수간 등 3개의 폭포가 있어 차고 맑은 계곡물이 흐른다.

산기슭부터 정상까지 노송과 참나무 등으로 이뤄진 뽕뽕한 수림이 있고, 하층부는 두릅나무, 철쭉, 싸리나무, 산초나무 등 수많은 관목류와 애기똥풀, 양지꽃, 피나무 등 야생화가 자생한다. 등산로를 따라 산 정상까지 오르면 소양호와 백두대간, 강원도 내륙의 고산준령

을 볼 수 있다. 휴양림에는 다목적광장, 놀이시설, 체육시설, 물놀이장, 민속놀이장, 텐트장, 취사장, 삼림욕장, 산책로, 청소년수련의 집, 야외교실, 살충성분이 함유된 통나무집 등이 있어 가족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주변 공작산 자락에 신라 시대에 원효가 창건한 고찰 수타사, 홍천 온천관광지, 팔봉산관광지, 대명스키장 등이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휴양림 이용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며 "영서내륙 최고의 휴양림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❶

